

박근혜 '국정농단' 1심 끝...재판 더 있다

특활비·공천개입 재판 돌입

재판부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내달 '특활비' 정식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은 6일 징역 24년 선고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들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추기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 재판을 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두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할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이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국선 변호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자필로 적어 전달했다. 이 답변서에는 국정원 장에게 특활비를 교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국정원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천개입 혐의 역시 부인



지난 6일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추가 확인해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서면으로만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추가 확인해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어 재판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식재판은 공천개입 사건부터 열린다. 재판부는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일정을 이달 중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5월 중으로 정식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나온 상태에서 심리가 열리는 '결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에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은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지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6억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36억원이 선수촌 사용료로 사용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합이 여러 행정 지원을 받아

박근혜 재산 동결...벌금 180억 못낼 듯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000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벌금액은 1185억원이었다. 다만 벌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

통령은 이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산액이 벌금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데다 다른 뇌물혐의로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3000만원 등 약 37억4000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국동에 28억원 짜리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택 매각 차액 가운데 30억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액 180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규모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장의 최장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1천여만 원 꼴로 책정될 수 있다. /연합뉴스

"형량 너무 많다" 박근혜 항소 뜻 밝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량이 너무 높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8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항소할 수 있다"며 "형량이 높아서 당연히 항소해야 하는, 거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다 내 탓"

국정농단 사태를 몰고 온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자 공범인 최순실(62)씨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깊이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끝난 오후 4시에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최씨를 면담하고 박 전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의 부당성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이 작년 10월 선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해 정확한 본인 의사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연합뉴스

선고 결과를 알렸다. 최씨는 자신의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듣고 "다 나 때문이다"고 자책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최씨 측 관계자는 "징역 44년의 무거운 표현하면 최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83억 지급하라"

U대회 선수촌 재건축조합 사용료 일부 승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서 선수촌 재건축조합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같이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가운데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했다.

입주 지연기간 발생한 분양대금 미납액의 금융비용(이자)을 조합이 부담했는데 이를 사용료로 광주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주 지연기간은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포함한 11개월(2015년 4월 28일~2016년 3월 31일)이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36억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36억원이 선수촌 사용료로 사용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합이 여러 행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점, 다른 국제대회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조합이 청구한 금액에서 일부만을 인정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일~14일) 선수촌으로 사용한 아파트(화정 주공)의 사용료가 얼마인가를 두고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차비용 산출방법 등에서 견해를 보이면서 청구 금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조합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쟁점사항에 대한 1·2심 법원의 판단에도 양측 주장에 차이가 커 조합과 광주시 모두 다시 상고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이어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채 간판을 유지하고 있다.

300억원대에 이르는 잉여금 사용처도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확정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12일 채용설명회

울 지역인재 463명 채용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인재 463명을 채용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오는 12일 나주에서 합동 채용설명회를 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은 18%이며, 2022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전KPS 등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윤장현 시장 네팔 광주진료소 의료봉사 떠나



윤장현(사진) 광주시장이 네팔 광주진료소 의료봉사를 위해 지난 7일 출국했다. 윤 시장은 오는 12일까지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안과진료 등 의료봉사 활동에 나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전파한다.

광주시는 지역 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4년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2017년 네팔 광주진료소, 지난 3월1일 고려인마을에 광주진료소, 3월16일에는 몽골 이동 광주진료소를 개소해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시장은 최근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주인 직매
010-3799-3830

혈당조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식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